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지상중계

팽팽한 격론 - 한때 긴장... '이견 확인' 만도 큰 수확

● 남측 발제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남북회담에 여성대표 참여’ 제안

가부장제란 원래 가장이 다른 가족위에 군림하고 통솔하는 권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가부장제에서는 가족 안팎 남성간의 위계적 관계와 남녀사이의 지배 종속 관계가 형성된다.

이에 기초한 ‘가부장제 문화’는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를 지속시키는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말한다. 가부장제 문화의 보편적 특징은 남성중심주의와 남녀의 차이를 과장해 양분화된 모형을 제시하는 데 있으며 이에 기초해 남녀 모두를 획일적인 문화의 대행자로 만든다.

그러나 가부장제 문화의 보편성이란 영구불변하거나 타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오히려 반드시 ‘극복’해야 할 부당한 것이며 극복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런 보편적 특징은 사회



발제자: 조형 (이대 사회학과 교수)

것이다. 서울 토론회가 건설적인 모임이 되기 위해 우리 여성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과제를 발견하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제안을 해본다.

첫째, 남북 두 정무간 통일을

배 구도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하는 일이다. 이의 극복 없이는 통일이나 어떤 다른 정치적 변화도 자동적으로 남녀 평등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남북간에 형성된 이질성을 극복하는 데 여성들이 앞장을 서는 일이다. 통일이 언제 될 것인가의 시기에 상관없이 이런 노력은 다양하게 전개될 때이며 여러 여성집단이 만나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남과 북, 일본 여성이 함께 힘을 합해 추진할 일을 찾는 것이다. 정신대 피해 여성을 위한 사업이 그 중 한 가지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여성 교류가 생활에도 서로 보탬이 되는 방법을 찾는 일이다. 예컨대 명절은

● 북측 발제 〈통일과 여성〉

여성들이 통일 이끌 실질적 주역



발제자: 정명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참사)

최근 해외동포 여성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여성들은 잠재역량이 아닌 통일을 실질적으로 밀고갈 힘

는 주체가 되고 있다. 통일은 낙관적 현실로 다가오고 “1995년을 통일원년으로 하자”는 통일의 시간표에 다같이 공감한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통일을 이루려면 전쟁의 위험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 전쟁추구세력들이 있는 한 또 한차례의 전쟁, 핵전쟁은 피할 수 없고 전후방이 없는 전쟁에서 우리 겨레는 자멸하게 된다.

우리는 연방제 통일방안이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것이라고 인정한다. 우리의 경험은 여성의 통일 노력이 다른 이들의 지지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보기에 당국간 대화는 물론 민간 대화, 정치·경제인, 여성들도 만나야 한다고 본다.

가부장제 문화를 극복해 남녀가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단과 전쟁, 군사문화를 극복하는 일이 필수적 과제가 된다.

의 경제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르기에 남북한, 일본에 각기 다른 특수성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남한은 60년대 이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백94만원이 되는 경제중진국이 됐다. 이런 변화는 여성들의 삶의 방식과 사회적 지위에도 변화를 초래했으나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은 남성

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머물러 있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간 적대관계는 양쪽 사회에 모두 지나친 군사적 부담을 안겼다. 군대나 전쟁이 사회적 중요성을 지니게 될 때 그 영향은 가부장제 문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용된다.

우선 사회는 공격적인 남성상을 우월한 가치로 강조하는 반면 여성은 나약한 보조자로 전락하게 된다. 또 여성은 더 나약한 존재로 특히 성적인 존재로만 축소되며 군대의 경직되고 엄격한 위계조직이 사회조직의 모형으로 정착되기 쉽다. 따라서 가부장제 문화를 극복해 남녀가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단과 전쟁, 군사문화를 극복하는 일이 필수적 과제가 된다.

남한사회를 중심으로 살펴본 가부장제 문화가 나타나는 형태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북한이나 일본여성들도 가부장제 경험에 대해서 함께 대화할 만큼 ‘유사성’을 지니고 있을

위한 회담에 여성대표를 내는 일이다. 이는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며 여성대표는 정부의 대표이자 동시에 여성의 대표가 돼야 한다.

둘째, 남측 여성들이 해온 것처럼 가부장제 문화와 남성지

기해 서로 귀한 물건을 교환하는 사업도 추진해 볼 만하다.

여성들이 남성세계의 권력다툼이 아닌 생활의 지혜와 정서, 애정으로 결합할 때 통일은 민족을 위해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아시아 평화도 이뤄지리라 믿는다.

◆ 토론회 이모저모 ◆

북의 여성해방 자랑

○...북측 김선옥(해외동포영접부 부부장) 씨는 첫 토론자로 나서 “가부장제 문화가 남성문화이고 군사문화로 대립과 충돌을 낳는다는 설명은 결만 보는 것이다. 대립과 충돌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번성에 있다”고 이견. “북한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차지한다”며 북에서의 여성해방을 자랑.

북한 여성은 가정의 꽃

○...시종일관된 북측의 자랑에 “남한에서는 여성이 꽃에 비유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북한에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김선옥 씨는 “북에서는 <여성>은 꽃이다”는 노래가 작곡됐을 정도로 여성은 가정의 꽃, 행복의 꽃, 나라의 꽃이다. 남성들은 부인이 더 아름다워지길 바라듯 여자들이 한해야 남자들, 나라가 한해진다”고 답변, 남북한 사이에 여성문제를 보는 근본적

시각에 큰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가부장제문화 남성문화 아니다 이견

또 가부장적 문화의 유산인 성별분업에 따른 남녀직업분리 현상을 묻자 “탄광 등에 여성의 진출을 제한하고 미용사, 간호원직같이 여성이 재간을 부릴 수 있는 곳에서 일한다”며 여성은 여성다운 특성을 살려야 한다고 답변, 남한에서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는 고정관념적 여성성을 북한에서는 자연스럽고 바람직하게 보고있는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여성학적 얘기 나누고 싶다’

○...우리측 발제자인 조형 교수는 마지막 논평을 통해 “우리가 보는 여성문제가 북측서 보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느낌”이라며 앞으로는 맨발바닥부터 ‘여성학적’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피력했다.

1시간 가량 ‘연설조’로 읽어

○...26일 오후 2시 정각에 시작된 북측의 발제는 정명순 씨가 30페이지 분량을 무려 1시간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시종일관 ‘연설조’의 톤으로 읽어나가자 3백여 명이 운집한 토론장은 긴장감이 감돌며 조용한 분위기.

‘예상했지만 놀랐다’

○... 전반부의 공감과 달리 후반부로 갈수록 북한의 ‘통일 연방제’가 거론되고 남한의 통일정책, 틴스퍼리트훈련, 핵사찰 문제를 정면 비판하자 방청석에서는 “예상했지만 놀랐다”는 수군거림이 일기도.

이 교수, 정치학도로서 반론 퍼

○... 별무리없이 북측발제를 끝까지 존중, 박수로 끝맺음했으나 우리측 토론자로 나선 이경숙 숙대 교수가 “정부 당국과 민간의 견해가 일치된 북한과 달리 우리 사회는 다원화돼 있어 정부 대변인이나 여성 대표자보다 정치학도로서 국민 대다수 의견을 집약해 발표하겠다”고 서두를 꺼내고 강한 반론을 퍼기 시작.

‘동질성 회복이 통일의 원천’

○...이경숙 교수는 “우리의 분단은 미·소에 의한 영토분단, 6·25로 인한 민족 및 이념분단 등 3중 구조로 적대관계가

◆ 토론회 이모저모 ◆

심화돼 상호비방의 이질감이 심화돼 왔다”고 말하고 “한민족 공동체 의식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길만이 통일을 해결하는 원천”이라며 “자주·평화·민주의 통일원칙하에 민주복지 국가가 돼야 한다”고 역설, 북측 발제 때와 달리 수차례 박수 갈채를 받기도 했다.

정명순 씨 재반박에 고도의 긴장

○...또 이 교수는 “연방제를 택한 세계 20개국의 경우도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나라는 없다”며 북측의 연방제 통일론 등을 비판하자 다시 답변에 나선 정명순 씨는 “북한에서 있었던 남북 적십자 회담 때는 몰랐던 심한 견해를 느낀다”며 ‘사건’임을 전제, “단일국가, 통일민주공화국을 세우자는 의견은 우리 민족이 지나치게 이질화됐음을 전제로 한 비현실적인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동질적이고 공통적이며, 언어를 일부 이해 못한다고 이질화로 볼 수는 없다”고 재반박하자, 한때 고도의 긴장이 감도는 듯했다.

방청객 쪽지로 분위기 급전환

○...양측의 통일방안을 놓고 팽팽한 분위기가 일자 사회를 맡은 한명숙(여성 민우회 회장) 홍보위원장이 쏟아지는 질문지 속에서 “양쪽 모두에게 보내온 글”이라며 “발제·토론자로부터 남북한 당국의 성명을 듣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지 의심

스럽다.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방안부터 먼저 모색하자”는 한 방청객의 쪽지를 읽어 주자 우뢰같은 박수 속에서 ‘극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로 바뀌는 데 성공. 방청석에서는 “역시 여성들은 다르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며 흐뭇해 했고 토론은 오후 4시 정각에 종결되었다.

오색리본 들고 통일노래 합창

○...토론이 끝나자마자 3백여 방청객이 통일염원을 쓴 오색리본을 받쳐들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해 일순간 격렬했던 <통일과 여성> 토론에서 다시 뜨거운 한자매임을 확인,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조금은 손해본 느낌도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을 발제한 우리측의 주된 논조는 여성의 시각에서 본 솔직한 우리 체제비판 등 우리 현실을 ‘한치의 미화’도 없이 그대로 보인 반면 북한측 토론은 시종 “북한 여성들은 평등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여성은 완전히 해방됐다”는 얘기를 되풀이해 우리가 ‘손해본’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방청객들은 “북한은 여성들에게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 자체가 바로 북한의 가장 큰 여성문제가 아니겠나”는 인식으로 ‘위안’을 삼기도.